

● 발표 주제

ISO 26262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

Th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ISO 26262 on the Domestic Automotive Suppliers



고병각

Byeong Gak Ko

DNVGL

Functional safety/팀장

byeong.gak.ko@dnvgl.com

Professional Career

- 2010-현재 ISO TC22/SC32/WG8 member
- 2015-현재 Automotive SPICE competent assessor
- 2013-2017 한양대 겸임교수
- 2005-20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

● 발표초록

2011년 11월에 ISO 26262 1판이 제정된 후 약 7년이 흐른 2018년 12월에 2판이 개정되었다. 국내 및 해외 완성차 업체는 자동차 제어기에 대한 안전 컨셉 개발과 개발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적용 및 관리하기 위한 내부조직 역량 강화, 협력사 육성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. 또한 제어기 개발 및 MCU 등 부품사 역시 완성차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/하드웨어/소프트웨어 수준의 기술적 구현 및 검증을 위한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현재 ISO 26262에 대한 기술적 편차 및 접근 방법에 대한 차이점이 협력사 별로 존재하고 있고, 이로 인해 제어기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의 가능성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.

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국내의 양산 프로젝트의 ISO 26262 기술자문 및 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부품사의 기능안전 관점에서 강점인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고,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 / 관리적 측면의 해법에 대해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.